

# 과제물 검사 방학생활 이야기

## 포천초등학교 2월4일 개학식 가져

포천초등학교(교장 임종수)는 2월 4일 겨울 방학을 마치고 개학했다. 37일간의 긴 방학을 보낸 어린이들은 오랜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기뻐했다.

방학동안 공부했던 과제물들도 잘 정리하여 선생님께 검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방학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어린이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넘었다.

포천초등학교는 2월 15일날 중업식을 마치고 봄방학이 시작된다. 봄방학이 끝나면 바로 새학년에 진학하기 때문에 지금의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

어린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새 학년에 올라가도 같은 반이 되고 싶다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치연 학생명예기자(포천초 4년) skfkgk3@hotmail.net



포천초등학교는 2월4일 겨울 방학을 마치고 개학했다. 37일간의 긴 방학을 보낸 어린이들은 오랜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기뻐했다.

### 자유기고

## 설 맞이



조은혜 학생명예기자(포천초 4년)

이제 육학년이 되겠지! 하는 기대감에 맞는 설날이다. 마스크에서는 귀경길 차랑과 설묘객들의 줄이름에 대해서 시간시간 뉴스가 보도되고, T.V의 한복출연으로 설에 대한 설감을 더욱 느끼게 한다. 무엇이 그리도 분주하고 무엇이 그렇게 설레이게 하는 것일까?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 자매 친척들의 민낯과 돌아간 조상님들께 올릴 차례음식상을 준비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있을 것이고 그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윗 어른들께 대한 세배와 그 댓가로 돌려주시는 건갑하고 공부 열심히 하거나 하는 덕담과 주머니 두둑히 채워지는 세뱃돈을 설날이 아니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연중행사의 기쁨이다.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지만 그래도 포천군 관민면에 가면 큰집이 있다. 다행히 친가 외가가 경기도라서 주행중 지루함이 없어 좋았다.

그래도 설날이면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재롱도 부리고 또 머리로 쓰다듬어 주시던 할머니가 계시지 않아 허전하기도 했다. 사촌 언니 오빠들과 차례와 세배를 마치고 청령 삼화리에 있는 납골당으로 출발했다. 40분 정도를 달리는데 여기 저기 에 낮은 산중턱에 성묘객들이 눈에 띄었다. 경치 좋은 산허리에 산소가 있고, 예쁜 야산에 산소가 보였다. 북한강에 있는 대교를 가로질러서 오솔길 같이 정겨운 한적한 도로를 타고, 조

상님들을 모신 납골당에 도착했다. 공기 좋고, 바람 맑고, 양치 바른 조용한 곳이다.

가끔 도토리 나무의 마른 잎들이 달랑 달랑 몸을 흔들며 바삭바삭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려 불이 간지럽기도 하고, 간간히 비행기 소음을 내며 날아갔고, 이름 모를 예쁜 옷을 입은 산새들도 날아다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41세라는 계보가 있고, 그 밑에 42세라는 계보도 있었다. 문중의 최고의 조상님들은 우측 추모당에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는 좌측 추모당에 모시기로 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 손녀 은혜 왔니? 하시며 잔잔한 사진속에 미소가 속삭여 주시는 듯 했다. 할머니 춤지 않으세요? 캄캄하지는 않으세요? 묻고도 싶었다.

조상님들의 근검 절약으로 모으신 재산으로 땅을 사고, 납골당을 짓고, 또 우리 후손중 명문대 입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생겼다고 한다. 문중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저기에 계시는 조상님들을 한 곳에 모시게 되니 제사를 지낼 때, 비빔밥 돌아다니며, 정성 없이 하지 않아, 시간 절약도 되며, 자연경치 만끽드리지 않게 되고,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가!! 지금의 납골당 문화도 좋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장애 문화가 또 도입되겠지? 이제는 조상님들과 문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명문대를 꿈꾸는 여대생이 될 것이다.

요즘 호주제가 폐지되는 세상 일지라도 내게 뿌리 내려주신 조상님들과 문중 어른들께 감사드립니다.

- 2008 초등교감 자격연수대상자
  - ▶신북초 교사 고경자 ▶정교초 교사 박영선 ▶관민초 교사 박현옥 ▶영평초 교사 성기봉 ▶외북초 교사 장은숙 ▶중리초 교사 조순도 ▶태봉초 교사 최한성
- 2008 초등교감 자격연수대상자
  - ▶신북초 교감 김창식 ▶영중초 교감 손진홍 ▶왕방초 교감 안승순

### ■포천시 초·중·고등학교 졸업식 일지

월 일	학 교 명
2월12일	일동고등학교
2월13일	축석초등학교 관민중학교 이동중학교
2월14일	포천초등학교 내촌중학교 대경중학교 포천여자중학교 동남중학교 관민고등학교 영북중학교 포천일고등학교 동남고등학교
2월15일	내촌초등학교 보정초등학교 선단초등학교 영북초등학교 왕방초등학교 정교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지현초등학교 청성초등학교 추산초등학교 화현초등학교 경복중학교 삼성중학교 영북중학교 영중중학교 일동중학교 포천중학교 포천고등학교
2월16일	가산초등학교 외북초등학교 일동초등학교 청수초등학교
2월19일	영중초등학교 운남초등학교 유암초등학교 이곡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 포천노곡초등학교 포천삼정초등학교
2월20일	금주초등학교 도평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이동초등학교

### 한국 어린이합창컨벤션 체험일기

## ‘합창은 혼자만 잘해서는 안된다’



권정아 학생명예기자(유암초 4년)

포천시소년소녀합창단은 1월28일 2박3일 동안 대전 한국어린이합창단컨벤션에 참가하게 되었다.

합창단에 입단하고 첫 캠프여서 긴장 반 설레임 반으로 대전에 도착! 모두 26명의 합창단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재미있는 발성강의도 듣고, 여러 팀이 하나가 되어 장기자랑도 하였다. 우리합창단은 비록 합창에서는 등수에 들지 못했지만 장기자랑에서는 3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기뻐했다.

참 뜻깊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합창은 혼자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다. 여러 친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음을 맞춰야 좋은 노래가 완성된다. 앞으로도 좋은 경험과 실력을 갖춰 우리 포천을 더욱 빛낼 소년소녀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늘푸른국악교실 연주회 가져

아쟁 · 가야금 · 해금 · 북 · 대금 · 피리 등 교육

2월2일 관민초등학교 강당에서 늘푸른 국악교실 학생들의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주회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늘푸른 국악교실은 경기도포천교육청과 포천시청이 함께 주관했다.

국악교실에서는 아쟁 가야금 해금 북 대금 피리를 교육하며 악기 교육에는 서울에서 초빙된 훌륭한 교사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리 학생명예기자(영북초 6년) hell1597@naver.com



2월2일 관민초등학교 강당에서 늘푸른 국악교실 학생들의 연주회를 개최했다.

### 자유기고

## 서해바다에 보내는 반성문

내가 세상에 태어나 10년 6개월하고 3일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것 중의 한 가지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숨기고 싶거나 괴로운 것이 있으면 차라리 친구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모두 털어놓고 말 해 버리고 용서를 구하면, 속도 시원하고 조금이라도 시원한 답답하던 양심도 체감은 시원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서해바다에 반성문을 보내서 내 양심을 조금 시원하게 해 주려고 한다.

2007년12월7일,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난 후 기름띠를 걷어 내기 위하여 나와 우리 가족이 가장 먼저 다녀와야만 했다. 왜냐하면 서해안에 있는 태안 의 마검포 바다는 해녀마다 우리 가족의 여름 피서지로서 내가 태어난 후로 늘 1년에 3~4일은 서해바다에서 더위를 피했다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나의 외할머니 덕은 충청남도 홍성에 있다. 외삼촌들과 이모들은 여름휴가를 얻으면 모두들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지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도 홍성 노인회 어른들과 함께 태안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고, 작은 외삼촌도 바다에 가서 일주일동안이나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지 50일 되는 날 드디어 서해바다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설을 앞두고

태안의 안전도 근처에 있는 마검포 해수욕장은 우리 외가의 모든 가족들과 나의 추억이 살아있는 곳이다.

해마다 가는 민박집에 짐들을 풀어놓고, 바다에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수영복을 갈아입고 튜브와 보트를 끌고 바다로 들어가 사촌들과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다. 그러다가 물이 점점 바다 저 멀리로 도망쳐 가면 우린 호미랑 삼, 그리고 맛소금이란 양푼이를 챙겨서 갯벌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조개도 잡고 굴쟁이도 잡았다. 아버지께 삼포도 살짝 훑을 파면 나타나는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그 속에 맛소금을 넣으면 기다란 나무토막 같은 것이 속 나온다. 바로 맛 이라고 하는 조개인데, 소금을 넣으면 바닷물이 들어 온 줄 알고 나오는 것이 라고 했다.

민박집 마루에 앉아 우리가 잡아왔던 조개들을 구워 먹던 추억, 그리고 물놀이와 조개잡이가 지겨워 지면 우리는 손에 잠갑을 끼고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 밑을 돌아서 돌밭이 있는 곳으로 간다. 작은 돌들을 하나하나 들어 널 때마다 놀라서 손살갭이 도망가는 찰흙을 손가락 끝으로 확 닦아서 잡던 그 손의 느낌, 맑은 물 속에서 그리고 갯벌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던 작은 다슬기들...

지나여를 피서를 다녀 올 때도 두고 오는 바다가 너무 아쉬워서 자꾸만 돌아보면 바닷물에는, 어느 날 그 바다가 기름으로 덮였다는 믿지 못할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다.

TV를 통하여 보여 지는 서해바다의 병든 모습에 발만 동동 굴렀었다.

‘방학하면 나도 바다 간호러러 가야지’ 결심하며 어린이 신문

에, 방학하면 태안 바다에 자원 봉사하러 갈 거라는 다짐을 적은 기사를 읽기도 했다.

겨울방학이 되자, 나는 당장 돌을 해집으며 게를 잡던 태안의 그 바닷가로 달려가서 기름을 닦아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중풍에 걸려 몸이 불편한 외할머니가 늘 마음에 걸리는 나의 부모님께서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할머니를 따뜻하게 모셔야지 홍성에서 출제 계시다가 또 쓰러지면 큰일난다고 하시며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온 것이다.

먼 태안까지 혼자서 가겠다고 우길 수도 없고, 편찮으신 할머니를 두고 우리끼리 가서 봉사활동 하다가 울 수도 없어서 하루 하루 TV앞에서 속한 태우는 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지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도 홍성 노인회 어른들과 함께 태안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고, 작은 외삼촌도 바다에 가서 일주일동안이나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지 50일 되는 날 드디어 서해바다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설을 앞두고



할머니께서 명절 때문에 홍성에 가서야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

서해바다야, 너 사고 당했을 때 간호러러 못가서 미안해."

팔팔팔팔 뛰는 생선 갖다 주시며 끊어 먹으라고 하시던 민박집 아저씨, 사촌들과 내가 하루 종일 잠은 조개보다 방금 나가서 바꾸기 가득 더 많은 조개를 잡아구나 우리에게 주시며 굵게 먹으라고 하시던 민박집 아줌마, 여름에 만나요, 서해바다야, 너 아플 때 간호 해 주러 못 갔어도 나랑 함께 놀아 줄 거지?

그러면서도 나는 부끄럽게도 잠깐 한 결레, 결레 하나 가져가지 않았다. 출발하기 전에 암바가서 "할머니가 차 안에서 오래 앉아 계시지 못하니 우리는 오를 봉사활동 못한다. 네 소원이 아니라 그냥 바다가 어떤가 보고만 오는 거야"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검포에 도착하여 바다로 뛰어 가 보니, 지나여를과 똑같이 맑았다. 흑시, 하며 할아

그동안 100만 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이 태안의 바다에서 이 추운 겨울에 기름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한다.

그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의 서해바다에 건강을 되찾아 가고, 또 내 추억이 살아 숨 쉬는 마검포가 삼척 하나 없이 건강하니 정말 감사하다.

버지랑 모래를 파 보았지만 모래 속에도 기름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돌밭으로 가서 돌들을 보니 기름 한 방울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돌이었다. 돌을 들어보니 숨어있던 찰흙이 허겁지겁 도망쳤다. 돌 틈에 고여 있던 물속에서는 작은 아기가 다슬기들이, 이번 여름에 또 만날 나를 위해 열심히 몸을 키우고 있는 중이었다. 너무 기쁘고 놀랍고 신기해서 홍성에서 살고 계시는 작은 외삼촌께 전화를 걸었다.

"외삼촌, 저 태안 마검포인데 요, 여기 기름이 하나도 없구요, 찰흙도 다습기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외삼촌께서는 "그래 다행이도 그쪽까지는 기름띠가 번지지 않았어" 하셨다.

기름 유출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던 그 바다는 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홍성의 외할머니 덕으로 향했다. 태안에서 홍성까지 가는 동안 여기저기에 "자원 봉사자"라 써놓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 쓰여 있는 프렌카드들이 나를 더욱 부끄럽게 했다.



이치연 학생명예기자(포천초 4년)

그동안 100만 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이 태안의 바다에서 이 추운 겨울에 기름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한다.

그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의 서해바다에 건강을 되찾아 가고, 또 내 추억이 살아 숨 쉬는 마검포가 삼척 하나 없이 건강하니 정말 감사하다.

"서해바다야, 너 사고 당했을 때 간호러러 못가서 미안해."

팔팔팔팔 뛰는 생선 갖다 주시며 끊어 먹으라고 하시던 민박집 아저씨, 사촌들과 내가 하루 종일 잠은 조개보다 방금 나가서 바꾸기 가득 더 많은 조개를 잡아구나 우리에게 주시며 굵게 먹으라고 하시던 민박집 아줌마, 여름에 만나요, 서해바다야, 너 아플 때 간호 해 주러 못 갔어도 나랑 함께 놀아 줄 거지?



이치연 학생명예기자(포천초 4년)

그동안 100만 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이 태안의 바다에서 이 추운 겨울에 기름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한다.

그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의 서해바다에 건강을 되찾아 가고, 또 내 추억이 살아 숨 쉬는 마검포가 삼척 하나 없이 건강하니 정말 감사하다.

"서해바다야, 너 사고 당했을 때 간호러러 못가서 미안해."

팔팔팔팔 뛰는 생선 갖다 주시며 끊어 먹으라고 하시던 민박집 아저씨, 사촌들과 내가 하루 종일 잠은 조개보다 방금 나가서 바꾸기 가득 더 많은 조개를 잡아구나 우리에게 주시며 굵게 먹으라고 하시던 민박집 아줌마, 여름에 만나요, 서해바다야, 너 아플 때 간호 해 주러 못 갔어도 나랑 함께 놀아 줄 거지?

그러면서도 나는 부끄럽게도 잠깐 한 결레, 결레 하나 가져가지 않았다. 출발하기 전에 암바가서 "할머니가 차 안에서 오래 앉아 계시지 못하니 우리는 오를 봉사활동 못한다. 네 소원이 아니라 그냥 바다가 어떤가 보고만 오는 거야"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검포에 도착하여 바다로 뛰어 가 보니, 지나여를과 똑같이 맑았다. 흑시, 하며 할아

우정현 학생명예기자(포천초 4년)

### 함께 공부해요

## 심술지요(心術之要) ④

管敬仲曰畏威如疾은 民之上也요 從懷如流는 民之下也요 見懷思威는 民之中也니라.

(管敬仲은 管仲의 이름. 춘추시대의 제상)

관경중이 말하기를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기를 질병 같이 하는 자는 백성의 상등이다. 남의 회유에 따르기를 물 흐르는 것같이 하는 자는 백성의 하등이다. 회유를 당 할때 하늘의 위엄을 생각하는 자는 백성의 중등이다."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는 자는 감히 나쁜 짓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등 백성이다. 남이 은혜를 가지고 회유하면 그 이(利)를 탐해서 도리의 옳고 그른 것도 생각

해 보지도 않고 맹종하는 자는 하등 백성이다. 과거 동양에서는 敬天思想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또한 선한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린다는 교훈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양주승**  
본지 지문위원

###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미국영어

수위셀 3. <수> 읽기: (1)  
\* <조언> : 천 단위(세자리)로 끊어서, 눈으로 익혀 둘 것.

- 1,000(천) : 파우센 <Thousand.>
- 10,000(만) : 텐파우센 <Ten thousand.>
- 100,000(십만) : 한드렛 파우센스 <Hundred thousands.> 100×천
- 1,000,000(백만) : 밀리언 <Million.>
- 10,000,000(천만) : 텐밀리언스 <Ten millions.>
- 100,000,000(억) : 한드렛 밀리언스 <Hundred millions.>
- 1,000,000,000(십억) : 파우센 밀리언스 <Thousand millions.>
- 10,000,000,000(백억) : 텐파우센 밀리언스 <Ten thousand millions.>
- 100,000,000,000(천억) : 한드렛 파우센 밀리언스 <Hundred thousand millions.>

1,000,000,000,000(조) : 빌리언 <Billion.> 100만×100  
- 1,000,000,000,000(조) : 빌리언 <Billion.> = 백만×백만

문의 : 윤 중 성(017-723-4977)colyoon@nate.com

### 심리상담 ⑤

## 엄마와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

엄마와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가 심한 아이들을 분리 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징은 아이가 애착 대상인 사람(대부분의 경우 부모 중에서 엄마)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매달리거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고, 부모가 떠나려고 하면 화를 내고 울거나 애원을 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집이나 부모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불감 못 하거나 떠날 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집에 자주 전화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나의 애착 대상에게 비현실적인 걱정(예를 들어 '내가 없으면 엄마는 교통사고가 날 거야'), 애착 대상이 가까이

에 없을 때에 잠자기를 거부하기, 애착대상과 헤어져야할 것을 예상할 때에 두통이나 복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 호소, 애착대상과 함께 있기 위하여 학교나 유치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아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나 한두 명의 아이들과 먼저 사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거나 대집단에 집어넣는 것은 아이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아이에게 친구를 만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아이라면 충분히 선생님께 설명을 드려 도움을 구하고 아이가 적응을 할 때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머무르는 시간을 점차 늘려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어린이집을 가봅시다. 그리고 입학할 한 후에는 첫날은 1시간을 어린이집에 머무르게 하고 아이가 적응을 하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점차 늘려 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활동을 하고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문의: 우리심리상담센터**  
031-541-0954

**우정현**  
우리심리상담센터  
책임연구원